전국 최초의 고교생 시위

₩ 김진후

^{*}김진후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동성고등학교 학생으로. 1974년 가을 민청학련사건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성 고 시위사건을 조직했다.

1974년 10월 어느 날 0교시 수업에 맞춰서 등교하느라고 얼마 되지 않는 오르막길을 뛰어 오르니 숨은 어느덧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교실은 온통 삐라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도 나오고 책상서랍에서도 시험 문제지같이 역한 등사용 잉크 냄새가 진동한다. 유신정권 타도 전단이다. 구속학생 석방은 약방에 감초처럼 따라붙는 당연한 수식이었다.

1974년 봄 동숭동 서울대 데모사건. 이것을 박정희 유신정권에서는 민청학련사건으로 명명하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정의로운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 동성고등학교는 좌측으로 서울대, 우측으로는 성균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머리 뒤통수 쪽으로 고려대학이 놓여 있다. 그 사이사이에 경기고, 중앙고, 정신여고, 보성고, 경동고, 멀리 신일고, 대광고등학교 등이 우리 동성학교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져 있다. 그야말로 상아탑의 핵심이라고나 할까.

 $4 \cdot 19$ 혁명에 가장 앞장서 뛰어나간 전통이 드높은 학교정신이 그 야말로 발로하기 딱 알맞은 장소에 우리 동성학교는 위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지학순 원주교구 주교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대선배님이기도 하며,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 학교 대선배님이시다. 지학순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은 동문 수학한 동기 동창이시다.

이러한 환경과 내적인 에너지의 결합은 급기야 피끓는 정의로운 투쟁의 분출구로 폭발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얼굴없는 용사들의 10월 전단사건은 바로 뇌관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였다. 그 중 몇 몇이 가톨릭 학생회관에 모여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결연한 의지니 목숨을 걸

자니 하는 거창한 각오도 없이 자연스럽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순진하여서 마음은 굴뚝같은데 행동하는 데 는 미약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 걸맞은 인물을 찾는 도중 나와 접선 하기로 정하고, 비교적 나와 친해 보이는 윤병철을 통해서 나를 포섭하기에 이른다.

점심시간에 밥 잘 먹고 나서 윤병철이 느닷없이 "유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나는 무조건 "유신은 틀려먹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즉각 일갈하였더니, 윤병철이 그럼 됐다고 하면서 방과후에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다.

그곳이 바로 가톨릭 학생회관이었다. 도착해 보니 황선후가 보이고, 박천일이가 히죽히죽 웃고 있었으며, 옥정환 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입회 축하로 라면 한 사발 먹고 나는 값싸게 그들 포섭공작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거기서는 아무리 고성방가하면서 박정권을 비난하여도 말이 새지 않는 특수지역이다. 보안 걱정은 할 필요도 없는 곳으로서 안심하고 모의하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그 날부터 나의 고행은 시작됐다고나 할까. 어떨 때에는 막차가 끊어져 혜화동부터 구파발까지 걸어가기도 했고, 걷기가 꾀가 날 때는 택시를 집어타고 집에 도착해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혼쭐이 난 적도 있다. 학생놈이 간 크게 택시를 집어타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내가 그토록 엄청난 일에 연루되어서 자정 넘 어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눈치채지 못하고 이내 잠들어 버리신다. 나중에 이 사실들을 아신 할아버지께서 내가 호랑이 새끼를 기르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하신 바 있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 데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밀고자가 할아버지께 일러 바쳐서 15일간 방에 못질을 당한 채 금족 령에 처해 오도가도 못한 적도 있다. 그 때 동시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단을 뿌린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태복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지냈다.

이렇게들 각자 고생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본의아니게 속여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데모 준비는 아무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어 갔다.

황선후의 아버지는 당시 해군제독이셨고, 박천일의 아버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연대장이셨다. 의외로 군인가족 중에서 이런 반정부 데모 에 참여한 것은 기이한 일이나 가톨릭 학교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 을까? 다시 말해 가톨릭 정신이 가정문화를 극복했다고 보아도 무방하 리라.

내 경우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김규범의 아버지는 육군 소 장으로서 당시 사단장을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그가 데모 당일 친 구들이 흥분해서 다칠까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질서를 잡아주던 모습 이 아직도 생생하다. 과연 동성은 동녘의 샛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드디어 광목 준비도 끝나고 성명 전단 문안도 완성되었으며, 약간의 자금도 성공리에 모금되었고, D-day 거사 날짜도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김포공항을 떠나는 날로 잡고 보니,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김한이 개입하면서 데모 주동을 학생회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이유인즉 자기 형이 대학에서 데모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니 준비팀과 당일 데모 진행팀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회 명목으로 거사를 치러야 희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러자 내 주변인물들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무언의 압력이라고나 할까. 그때부터 나는 그들 집을 방문하여 결속을 다지는데 온힘을 기울 였다.

무위로 돌아가는 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거사 일주일 전 나는 학생회 학생부장인 김병채를 통해서 학생회와 손잡기로 결심하였다. 모 든 준비물과 모금된 자금, 가톨릭학생회관에서 학생증을 맡기고 어렵게 얻은 등사기 등 준비물 일체를 강학중 학생회장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학생회 간부들의 용기는 대단하였다. 이제는 동원 계획만 남았다. 학생회에서는 반장들을 모아서 반장 책임 하에 동원을 맡기니 데모 당일 주저함없이 일사천리로 교문을 뛰어나가서 스크럼 짜고 유신타도, 구속학생 석방,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며 이후 행동은 자동으로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돌아갔다.

문제는 1학년이었다. 그들은 동성의 학교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동성학교에 진학한 반면, 1학년 51회 후배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배정방식에 의해 진학하였기 때문이다.

1학년 동원은 다소 물리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내가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뜻있는 후배들이 많아 2학년과 합류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었다.

뜻밖에 3학년 선배들이 찾아왔다. 내일 모래 예비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만류하였다. 형들은 교무실 문고리나 꽉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예비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3학년 선배들이 교무실 문고리를 확실히 부여잡아서 야마모토 체육선생님 등은 창문을 넘어서야 운동장으로 나오셨다.

그러나 이미 주력은 교문을 박차고 나가 서울대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최루탄. 선두 10m 앞에서 수류탄 모양의 최루탄 이 대굴대굴 굴러서 평 터졌다. 1, 20m 정도의 원에 짙은 노란색 가스 덩어리가 형성되더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점프를 해서 통과했는데 정신여고 교문 앞에 이르렀을 때 눈물 콧물 줄줄이 새어나오고 이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래도 학생회장 강학중이 성토하는 곳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엉금엉금 기어가 학중의 연설을 다 듣고, 학교로 되돌아가 기 시작하였다. 학교 담을 넘어가면 잡히지 않겠지 하였는데, 벌써 진 압경찰이 빼곡이 학교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교문 안에서 연좌농성에 합류하자 하늘에서는 그 해 첫눈이 진달 래꽃만한 함박눈이 30분간 내려주었다. 신의 축복이다. 박정희 유신정 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는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하늘이 내려주는 기분이었다.